

차별적·권위적 표현 평가 유형 및 용례 구축

서현정(세종 국어문화원)

1. 들어가면서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언어가 사용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대안이 현실에 적용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차별적·권위적 표현 없는 공공언어가 되려면 우선 차별적·권위적 표현이 무엇인지, 공공언어 속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목록화하고, 용례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언어 개선은 크게 정확성과 소통성¹⁾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공언어는 어문 규범과 어법을 준수하여 '정확성'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 사용을 사용해야 하므로 '소통성'을 지향해야 한다. 소통성 측면의 공공언어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소통상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용이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문식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성을 위한 다른 한 축은 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권위적 표현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의 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공공언어에 요구되는 당위의 기준 중 특히 '언어적 감수성'을 요구한다. 직접적·노골적인 차별어는 공공언어뿐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쓰임이라는 이유로 별 문제의식 사용되기도 한다. 공공언어에서 노골적인 차별어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공문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차별의 의도는 없으나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차별의 의미가 담겨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인 차별의 의도는 없지만 차별적 의식이 내재화된 상태를 시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언어에서라면 더욱 이를 민감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차별 표현을 삼가야 한다²⁾. 아울러 고압적이고 권위적 표현 역시 공공기관을 정책의 시혜자로, 국민을 정책의 수혜자³⁾로 여기는 인식이 내재된 것으로 볼

1) 공공언어 평가 주체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의 요건으로 소통성과 정확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성은 용이성, 공공성, 정보성으로 세분화되며, 정확성은 표기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으로 세분화된다(국립국어원, 2019:8).

2)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는 언어 표현들은 사회의 차별적 통념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언어 표현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태린, 2011:396)

3) 국민은 정책의 대상자로서 국민의 필요를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공공기관을 정책을 시혜자로서 인식하게 되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위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 그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지 '시혜'의 주체가 아니다. 공공언어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은 공공기관을 정책의 '시혜자'로 인식하면서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 역시 넓은 범위에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언어에 사용된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 공문서를 검색하여 차별성이 내포된 말을 조사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앞서 차별적·권위적 표현에 해당하는 말들을 살펴보고, 공공언어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차별 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개념, 유형,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언어에서 사용된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목록화한 후에 실제 사용된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개념과 유형

2.1.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차별’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김슬옹(2021)에서는 ‘차별과’ ‘차등’이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어휘로서 ‘구별’이라는 일반화된 의미로 환원하여 제대로 된 뜻풀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차별어 의미에 담긴 관념 또는 인식 중심의 정의(박정일, 2004; 박혜경, 2009)와 차별 대상에 초점을 둔 정의(조태린, 2011), 차별 대상을 사회적 대립 관계로 보고, ‘부정, 공격, 불평등’을 드러낸 정의(이정복, 2014) 등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언어 현실에서 사용되는 차별 표현에는 단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와 혐오, 배제, 편견, 비하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정복(2014: 10-11)에서는 ‘차별 표현’과 ‘혐오 표현’, ‘증오 표현’, ‘비하 표현’, ‘모욕 표현’, ‘적대 표현’ 등이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고, 이런 용어들 중에서 혐오 표현이나 증오 표현, 비하 표현, 모욕 표현, 적대 표현 등의 말로는 모든 차별 표현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차별 표현’을 이들 표현을 아우르는 말로 보았다⁴⁾. 조태린 외(2006; 2011)에서는 차별적 언어 표현을 한 사회의 소수자 또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 또는 인식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 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차별적 표현에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 있으며, 원래는 차별의 의미가 없었으나 사회적 차별이 생기면서 차별의 의미가 더해진 말이 있다. 또한 차별의 의도는 없으나 사회적으로 내재된 편견이 담긴 관습적인 차별 표현도 있다. 즉 차별적 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표현을 아우르는 말로 개념화할 수 있겠다.

공공기관에서 위계를 강조한 직급 용어⁵⁾나 지시나 징계에 사용되는 표현에서 권위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강현철 외(2015)에서는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 외에 공람, 공차, 관유물 등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도 권위적 용어로 보았다. 다만, 공공언어 평가 시 ‘용이성’ 차원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권위적 표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공공언어에서 공공기관을 ‘주체’로 인식하고, 국민을 ‘대상화’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말, 상하의

4) 이정복(2014:36-37)에서는 ‘차별 표현’에 대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으로 정의했다.

5) 강현철 외(2015)에서는 법률에서 부여되는 별도의 직급이 매우 권위적임을 지적하면서 이들 용어가 순화 대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위계를 드러내는 말, 상부 기관이 지시하는 듯한 고압적 표현 등을 아울러 권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2.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유형

(1) 차별 표현 관련 선행연구

국립국어원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를 진행하여 조태린 외(2006)를 비롯하여 안상수 외(2007), 임영철 외(2008), 박재현 외(2009) 등을 통해 ‘성차별적 언어 표현’, ‘장애인 차별 언어’, ‘지역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와 대안어를 제시했다.

조태린 외(2006)에서는 성, 신체, 인종·국적·지역, 직업·사회,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차별 표현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과 관련해서는 미혼모, 미망인 등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거나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경우, 여의사, 여대생, 여기자 등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경우, 처녀림, 처녀작 등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하는 경우, 바깥사돈, 시집가다와 같이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경우, 계집애, 마누리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신체와 관련해서는 귀머거리, 똥보, 몸짱 등 장애 비하, 장애 이용, 외모 비하, 외모 강조의 경우에 사용되는 차별어를 제시하였다. 또 검둥이, 잡종 등 특정 인종을 비하 또는 차별하거나 교포/동포/재외국민, 코시안 등 자국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말을 비롯하여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말 등 인종·국적·지역 관련 차별 표현과 잡상인, 봉급쟁이 등 직업을 비하하거나 사생아, 미숙아 등 특정한 출생을 비하하는 직업·사회 관련 차별 표현을 비롯하여 진보/보수, 일류/이류 등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말, 강남, 고전 무용과 같이 지시 대상이 불분명한 말, 초일류, 최악 등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차별 표현으로 제시하였다(조태린 외, 2006:28).

안상수 외(2007)에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대안 표현을 제시하였다. 그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

구분	내용	예시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하는 말	삼성맨/샐러리맨/세일즈맨, 영업맨/예스맨, 소년원, 바지사장, 신사협정, 효자상품, 어부, 형제, 사모님식 투자, 얼굴마담, 모교, 팔방 미인, 자매결연
	호명 순서의 불균형	부모, 한부모, 조부모, 소년소녀, 선남선녀, 무남독녀, 신사숙녀, 아들딸, 자녀, 남매, 오누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불필요한 성별 강조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여전사, 여경, 여기자, 여배우, 여성 개발자, 여성 대변인, 여성 작곡가, 주부선수, 남자 고등학생, 남자 리듬체조선수

6) 안상수 외(2007)에서는 이 밖에도 출가외인, 집사람, 기동서방 등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말, 선 흑진주, 솟총각, 쪽쪽빵빵 등의 선정적 표현, 여편네, 부엌데기, 접대부, 머슴, 기생 오래비, 제비족 등 특정 성을 비하하는 말 등을 제시하였다.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한 예외성 강조	당찬 여성, 남자같은 힘있는 스윙, 여장부, 속맥 같은 남자
---------------------	-----------------------------------

[표1]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안상수 외, 2007:31-32, 표는 재구성)

임영철 외(2008)에서는 장애인 차별어를 독립적 단어형, 문맥 속단어형,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로 나누어 용어에 대한 의식 조사와 대안 표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선정한 장애 차별용어는 정상인, 장애인, 장애우, 병신, 정신박약, 저능아, 무뇌아, 장님, 맹인, 외눈박이, 애꾸(눈), 사팔뜨기, 병어리, 귀머거리, 언청이, 농아, 농아인(농아자),⁷⁾ 절름발이, 난쟁이, 앓은뱅이 등이며, 속담 표현형으로는 병신 육갑 떠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에 못지않게,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병어리 냉가슴 앓다, 꿀 먹은 병어리,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불구가 된다, 절름발이 내각, 절름발이 지성인 등이다.

백재현 외(2009)에서는 공공언어에서 발견되는 지역, 인종, 민족 혈통,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 연구로서 대상자 면담 등을 거쳐 차별 표현을 선정하였다.

구분	내용	예시
지역 차별 표현	'비(非)-' 관련 표현	서울/비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 서구(선진국)/비서구
	기타 표현	서울로 올라가다 지방으로 내려가다 달동네, 판자촌 촌놈 촌구석 촌뜨기 시골뜨기 시골내기
인종·민족 차별 표현	인종 차별 표현	유색인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민족 차별 표현	조선족, 에스키모, 아메리칸 인디언/인디언
	혈통 관련 차별 표현	'계(系)' 관련 표현, 혼혈아, 코시안, 다문화 가정, 다문화아동, 토종/토종 한국인, 라이파이한
	이주민 관련 차별 표현	동남아 노동자/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여성 결혼 이민자,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표 2] 지역·인종·민족 차별 표현 사례 (박재현 외, 2009, 표는 재구성)

위의 연구들은 차별 대상과 의미에 기준을 두고 차별 표현을 유형화한 것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계집애, 여편네, 귀머거리, 똥보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이 차별의 의도나 의미가 직접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 말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말들이 있다. 공공언어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미망인', '녹색어머니회', '결혼 이주 여성' 등처럼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나 맥락상 차별의 의미가 내포된 차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건범(2018)에서는 차별어를 언어 차별의 가장 나쁜 모양임을 지적하면서 차별어를 의도적 차별어, 역사적 차별어, 맥락적 차별어로 구분하였다. 의도적 차별어는 '멍청도, 검둥이, 맘충' 등처럼 남을 혐오하거나 놀리려고 원래 이름을 비틀어 부르는 별명이나 새로 만든 이름이고,

7) 보고서에서는 농아(인/자)로, 제시함.

역사적 차별어는 차별 의도는 없었으나 사회적 관계와 맥락에서 차별의 행위가 같이 사용되면서 차별어가 된 사례로 ‘처녀작, 처녀림’ 등과 같은 말이다. ‘맥락적 차별어’는 가장 논란이 많은 영역으로 사회적 관계와 상황 맥락 속에서 차별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말이다.

김슬옹(2021)에서는 차별어를 내용 특성에 따라 노골적 차별어, 비대칭 차별어, 관습적 차별어, 다의적 차별어로 구분하였다. 노골적 차별어는 차별 의도가 언어 형식이나 내용으로 드러나는 누구나 인식하는 비속어나 혐오 표현으로 개독교, 신용불량자, 사생아, 오랑캐, 병어리, 여편네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김슬옹, 2021: 61-62). 비대칭 차별어는 다른 어휘와의 관계에서 차별 의미가 드러나는 말로 ‘신랑 신부’, ‘장인 장모’처럼 특정 성을 앞세워 말하거나 특정 성이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관습적 차별어는 ‘미망인’처럼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사용된 말로 보통 차별어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며, 다의적 차별어는 특정 맥락에서 차별어로 쓰이는 말로 ‘처녀, 변태성욕자, 외눈, 코시안, 다문화’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위 두 논의는 차별의 내용뿐 아니라 차별의 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차별 표현을 구분한 것으로서 공공언어에서 사용되는 차별어 양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공공언어에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은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차별 표현과 사용 맥락에서 차별의 의미를 담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언어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말, 또는 특정 계층을 배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지속해서 차별 표현에 해당하는 말을 발굴하여 알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2) 공공언어 개선 차원에서 본 차별적·권위적 표현

공공언어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어이자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언어로서 소통성과 공공성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구분한 다양한 층위의 차별어는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차별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정책 대상이 되는 국민보다 상위에 있다는 의식을 깔고 있는 권위적 표현 등은 공공언어 사용에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공공언어 개선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실제 공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수집한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가 선정한 양성평등 대체어 목록을 배포하였다. 전체 행정순화어 558개 중 2018년에 선정한 정상인, 결손가정 등 11개 용어와 2022년에 선정한 저출산, 맘카페, 딥페이크⁸⁾ 등 24개의 용어가 차별 표현에 해당한다. 그중 ‘학부모’, ‘녹색 학부모회’는 ‘학부형’과 ‘녹색 어머니회’의 순화어로 제시된 말이었으나 이후 순화 대상어가 되어 ‘보호자’, ‘녹색교통봉사단/안전지킴이’가 행정 순화어로 제시되었다.

8) 딥페이크의 경우, 실제 딥페이크가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범죄로 악용되는 영상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별 용어에 포함될 수 있다.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허위로 조작하고 합성하여 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배포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딥페이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영상 기술의 하나인 객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순화 대상어	권하는 말(행정 순화어)	선정일자	기타
정상인	비장애인	2018. 3. 27.	
결손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2018. 3. 27.	
미망인	고○○○(씨)의 부인	2018. 3. 27.	
불우 이웃	어려운 이웃	2018. 3. 27.	
편부(偏父), 편모(偏母)	한부모	2018. 3. 27.	
조선족	중국 동포	2018. 3. 27.	
장애우	장애인	2018. 3. 27.	
학부형 (學父兄)	학부모	2018. 3. 27.	
녹색 어머니회	녹색 학부모회	2018. 6.	
유모차	유아차, 아기차	2018. 6.	
내조/외조	(배우자의) 도움	2018. 6.	
저출산	저출생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여자가·남자가	(성별 정보가 굳이 필요없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어른이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처녀작	첫작품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맘카페	(지역) 육아카페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부모	유아돌보미, 육아지원사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김여사	운전 미숙자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부녀자	여성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여의사, 여배우, 여경, 여군...	의사, 배우, 경찰, 군인...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낙태	임신 중단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여성적·남성적 어조	부드러운·강인한 어조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야동/음란물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성착취물/ (불법촬영의 경우)불법촬영물, 불법성(性)영상물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리벤지 포르노	성착열물 유포협박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몹쓸 짓	성범죄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딤편이크	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영상물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공연음란/공연음 란물	불법 성적 노출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몸캠피싱	(화상 통화 시)신체 촬영물 협박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손찌검	폭력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친가/외가	아버지 본가/어머니 본가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친할머니(친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시댁/처가	시가/처가, 배우자 본가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배우자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학부모	보호자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녹색 학부모회	녹색교통봉사단, 안전지킴이	2022. 6. 20.	고시일 2022. 6. 30., 양성평등대체어

[표3]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가 선정한 차별 표현 목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⁹⁾>을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차별 표현을 발표¹⁰⁾하였다. 특히 법령 및 행정 용어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성차별 언어 개선을 촉구¹¹⁾하였다. 연도별로 발표한 차별 표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차별 언어(바꾸고 싶은 말)	성평등 언어(쓰고 싶은 말)
2018년	여OO(여의사, 여배우)	(‘여’빼기)OO (의사, 배우)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처녀OO (예) 처녀작, 처녀출판	첫 OO (예)첫 작품, 첫 출판
	유모차	유아차
	그녀	그
	저출산	저출생
	미혼	비혼
	자궁	포궁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2019년	스포츠맨십	스포츠정신
	낙태	임신중단
	김여사	운전미숙자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승하차장
	분자·분모	윗수·아랫수
	경력단절여성	고용중단여성
	수유실	아기쉼터
	부녀자	여성
	버진로드	웨딩로드
효자상품	인기상품	
2020년	학부형	학부모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주관을 맞아 성차별 언어를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캠페인으로 시민 제안 내용을 국어와 여성계 전문가 자문회의 걸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하였다.

10)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누리집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418>

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도자료(2020. 9. 1.),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저출산	저출생
자, 양자, 친생자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미혼, 미혼모, 미혼부	비혼, 비혼모, 비혼부
첩	삭제
편부·편모	한부모
세대부+처	세대주+배우자
유모차	유아차
미숙아	조산아
자매결연	상호결연

[표4]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차별 표현 목록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차별 표현과 중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표현이 발굴되기도 한다. 다양한 주체들이¹²⁾ 차별적 표현의 근본적 원인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 용어 목록을 구축하여 공공언어에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꾀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14)에서는 공공언어를 쓴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처지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이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며,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을 피하고 차별적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공언어를 쓸 때 국민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차별적 표현과 권위적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시	대체 표현
차별적 표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결손가정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가족, 조손가족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무주택 저소득층
권위적 표현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십시오.
	7일 내로 즉시 제출 바람.	7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운영하도록 하였다.
	장관은 ~라며 크게 치하였다.	장관은 ~라고 말했다.

[표5]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예(국립국어원, 2014:12~13)

‘소외 계층’과 ‘결손 가정’은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차별적 표현이다. 공문서에서

12)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정다정 기자가 작성한 기사(한글문화연대 누리집 <https://www.urimal.org/3977>)에서는 여러 단체와 기관이 선정한 차별 표현을 소개하였다. 그중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추진한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잼민이, 사춘기/중2병, 아이(물건을 지칭할 때), 등골 브레이커, 급식(층), OO양/OO군, 대견하다/기특하다, 애들, OO친구, 초딩’ 등을 선정하였다. 김해문화재단에서는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캠페인 ‘말모이’를 추진하면서 일상 속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찾았는데, 급식층, 된장녀, 들딱충 등의 혐오 표현과 미망인, 머리를 올리다(었다), 여직원, 효자 상품 같은 관습적인 표현, 기생수(기초생활수급자), 병신샷(술자리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별주), 흑형과 같은 신조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반팔’과 ‘외발자전거’도 개선해야 할 용어로 제시하였는데, 팔의 길이나 두 다리를 정상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누군가를 불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차별 표현을 발굴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 스스로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을 실천하려는 뜻깊은 운동이다.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들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전체 글의 내용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므로 차별적 표현으로 목록화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 ‘7일 내로 제출 바람.’과 같은 표현은 손아랫사람에게 낮추어 하는 말처럼 들리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서에 사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시하다’의 경우, ‘일러서 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상하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권위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치하하다’는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하는 말로, 역시 상하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하다’, ‘말하다’ 등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다.

강현철 외(2015)에서는 법령이나 정책에서 쓰이고 있지만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법령용어를 발굴하여 대안어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법령 용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보편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순화’, ‘전통적인 서열적 용어를 새로운 중립적인 용어로 순화’, ‘차별적인 권위적 용어를 보다 합리적 용어로 순화’, ‘특정계층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순화’, ‘특정한 편견을 주는 사회적 차별용어 순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¹³⁾.

선정 기준	예시
보편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순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업인
전통적인 서열적 용어를 새로운 중립적인 용어로 순화	고아, 편부, 편모, 부모, 자녀, 자매결연
차별적인 권위적 용어를 보다 합리적 용어로 순화	혼혈인, 종사자, 강사(료), 별정직, 접객, 육성자, 재외자, 주무부장관, 축주, 전살법
특정계층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순화	자회사, 모회사, 손자회사
특정한 편견을 주는 사회적 차별용어 순화	정규직/비정규직, 파출부, 접대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순화어를 마련할 수 있어 즉시 순화해야 하는 대상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견습/수습’, ‘노임’ 등 잘못 쓴 표현이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한 용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도 권위적인 표현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언어 평가에서 어려운 한자어 평가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로만 분류되는 말을 제외하였다.

간호원(→간호사), 강사료¹⁴⁾(→강의료, 강연료), 결손가정(→한부모가족), 고아(→삭

13) 여기에서는 청장, 교육감, 장관 등에 사용된 ‘장’, ‘감’, ‘관’, 변호사, 변리사 등에 사용된 ‘사’, 공증인, 과학자, 건축가에 사용된 ‘인’, ‘자’, ‘가’, 경호원, 공무원, 군수, 사법경찰리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 등 17건 사용 :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와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 서기보 등에 사용된 ‘원(단조원, 주조원, 용접원, 도장원, 도금원, 조작용, 정비원)’, ‘수’, ‘리’, ‘보’ 등 직급용어도 순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다만 개선용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점차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강현철 외, 2015:20-21).

14) 강현철 외(2015:23)에서는 직업명에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용어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강사료’를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강의나 강연을 하는 직업명에 비용을 합성하는 경우는 없다. 교수료 또는 선생료와 같은 용어가 쓰이지 않는 점에서 비교적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제시하였다.

제), 고아원/보육원(→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노무자(→노동자), 노숙자(→노숙인), 미혼모(→청소년 학부모), 미혼모자(→삭제), 불구(→장애), 사회지도층(→삭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저소득층), 양로원(→노인복지시설), 역무(役務)(→노동/노무), 연소자(→청소년), 외국인노동자*근로자(→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 잡급(→일급), 잡상인¹⁵⁾(→삭제), 장애인/장애자(→장애인), 저능아(→지적장애인), 정상인(→비장애인), 조선족(→재중동포), 파출부(→가사도우미), 폐질(→난치병/치료가 어려운 질병), 학부형(→학부모), 행려환자(→무연고환자), 혼혈아(→다문화 2세)

위의 용어 중 ‘혼혈아’의 순화 용어로 ‘다문화 2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문화’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특정 계층의 아동을 대상화하는 차별 용어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순화 용어의 적절성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는 차별 표현의 대체어의 적절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순화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용어를 따로 선정하였는데, 아직 적절한 순화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중 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는 용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인동포(→재러동포), 도농자매결연(→도농교류사업), 미숙아(→조산아), 사역(→일/봉사/업무), 식품접객업(→식품서비스업), 외청[外廳](→독립청/관리청), 재외자(→외국거주자), 별정¹⁶⁾공무원(→기간제공무원), 별정우체국(→위임우체국), 별정통신사(→계약통신사), 부모/남녀(→양친/양성), 종사/종사자¹⁷⁾

그 밖에 용어 자체에는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지만, 특정 성별만을 드러내는 용어이거나 합성어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용어로는 자(子)/자(者), 난장이, 처녀, 반려동물/애완동물, 병어리장갑, 불법체류자, 비정규직, 지방/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子)/자(者)의 경우에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애완동물에서 사용된 ‘반려’, ‘애완’이 의미에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라는 점에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순화 용어로 반려와 애완 대신 ‘짝, 친구, 동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로 풀이하고 있다. 사전상의 뜻풀이만 놓고 보면, 의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려’에 비해 ‘애완’은 ‘사랑 애(愛)’와 ‘희롱할 완(玩)’자가 사용되어 글자가 가진 의미로 보면 ‘가지고 노는 동물’이라는 의미

15) 서울시 국어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는 잡상인을 이동상인으로 순화하였다.

16) ‘별정’의 사전적 의미는 별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별정요금이나 별정우체국, 별정통신사와 같이 사물에 관련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적 표현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별정’을 사람과 함께 사용할 때는 차별성을 지닐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별정직 공무원’의 순화용어는 ‘기간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강현철 외(2015)에서는 사물에서도 ‘별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별정우체국’은 ‘위임우체국’으로 ‘별정통신사’는 ‘계약통신사’라는 순화 용어를 제시하였다.

17) 종사 또는 종사자는 용어 자체에 차별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 내포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는 2083건이었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는 198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애완동물이 2415건, 반려동물 4561건이었으며, 2018년에는 애완동물은 1907건, 반려동물은 12401건으로 대부분 기사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강현철 외(2015)에서는 반려동물도 순화 대상어로 보고 있으나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의 바람직한 대체어로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장이, 처녀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으나 ‘난장이이끼’, ‘난장이처녀치마’, ‘처녀고사리과’, ‘병어리뻐꾸기’처럼 특정 생물이름에 붙은 표현 중에 장애 차별용어가 쓰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용어는 당장 대체할 말을 찾기 어려운 고유명사이므로 일반 차별어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권위적 표현의 예로는 사정[司正](→감사/조사), 감찰(→감사/조사), 시달(→전달), 시보[試補](→임시/보조), 시정조치(→개선조치), 시책(→정책), 주무관청(→담당관청), 증명사진(→(얼굴)사진), 임검(→현장조사), 기부채납(→공공기증), 종주국(→탄생지), 준법감시인(→내부통제자), 지도/계도(→교육/가이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종주국의 경우, “종속국(從屬國)에 대(對)하여 종주권(宗主權)을 갖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용 맥락에서는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으나 원어에 차별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2015)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서도 일부 차별적·권위적 표현과 순화 용어,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언다’는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로 개선하고, 자(子)는 ‘자녀’로, ‘불구자’는 ‘신체장애인/장애인’으로 개선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4. 차별적·권위적 평가 유형 및 용례

4.1. 차별적·권위적 평가 유형

공공언어 평가를 위한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평가 유형과 용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표현과 권위적 표현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선행 연구들과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차별 용어 등은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 말들 중에서 차별과 고정 관념, 비객관적 표현, 관습적 표현 등을 아울러 조사한 결과이므로 공공언어 평가를 위한 차별적 표현으로 목록화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집애, 마누라, 똥보, 검둥이’ 등과 같은 비속어는 공공언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 관련하여 관용화된 표현이나 호명 순서에 특정 성별을 앞세우는 표현 등을 차별적 표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차별과 관련된 표현 중에서 ‘유색인종’과 같이 그 자체에 차별의 의도는 지니고 있지 않지만, ‘백인, 중산층’, ‘유색, 하류층’을 나란히 대비시켜 사용하는 경우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도 있다. 이렇게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야 할 수 있는 차별 표현을 공공언어 평가 기준을 위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포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

1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 2. 1.),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https://www.mafra.go.kr/bbs/mafra/68/319777/artclView.do>(검색일 2022. 8. 30.)

타낼 것인지 등 세부적인 지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코시안’, ‘다문화 아동’ 등 사회적 소수 계층에 대한 명명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문화’는 정책적 용어로 그 자체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등 국제 결혼 가정이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그들을 제3자로 대상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차별적 표현에 포함할 수 있다(박재현 외, 2009:116).

본고는 표현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차별 표현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최소화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차별적 표현 중에서 대체어¹⁹⁾가 있거나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등 공공언어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목록화하고자 한다. 추후 개별 용어에 대한 심도 있는 공동의 숙의과정이 꼭 필요하다.

권위적 표현에 대하여 강현철(2015:39~40)에서는 직급과 직책 및 징계 용어도 순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직급용어 외에 법률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별도의 직급이 매우 권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⁰⁾ 또한 매취사업, 무환수입, 서장, 비정규직, 소명(소명자료), 징구하다, 통고, 시책, 시달 등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전반적으로 권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자격명 등에서도 사(事, 士, 師)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중 매취사업, 무환수입, 서장, 통고, 소명, 징구하다 등은 일반 국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라는 것을 권위적 표현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려운 한자어는 공공언어의 ‘용이성’ 차원에서 다루는 지적 대상이므로 본고에서 정리한 권위적 표현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직급용어와 과도한 사(事, 士, 師)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용어 등의 경우 다른 권위적 표현과 달리 개선이 쉽지 않고, 개선을 하려면 장기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들 표현들도 제외하였다.

본고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 ‘차별적 표현’과 ‘권위적 표현’을 목록화하고 그에 대한 용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서 선행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차별적, 권위적 표현들 중에 공문서 평가를 위한 기준 목록에 포함하기에 적절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차별 용어 분류와는 다르게 평가를 위해 마련하는 목록이므로 차별적 표현의 경우, 차별의 내용과 대상에 따른 세부적인 유형은 구분하지 않고, 차별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차별성을 지니는지 등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공문서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차별어의 세부적인 유형을 구분하는 것보다 이들 차별적 표현이 지닌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차별 용어이거나 말 자체에 차별성이 담긴 표현은 표면적 차별어로, 상황과 맥락, 역사적 변화를 거쳐 차별성을 갖게 된 말들은 이면적 차별어로 명명하였다²¹⁾. 이러

19) 대체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연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용어가 사용된 배경, 내포하는 의미들, 사용 맥락 및 관습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대체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0) 강현철(2015:39)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직급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직급(주사, 주사보,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등)에 관한 전반적 검토(권위적 용어정비), 간사, 서기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권), 전문경력관, 정보화책임관
- 정무직,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 군수, 도지사, 임업서기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징계용어 검토(권)

한 명명은 기존의 차별어 분류에서 차별성의 층위를 다소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표현적 차별어와 이면적 차별어의 구분은 차별성의 경증과는 전혀 관계 없다. 또한 권위적 표현의 경우, 용어 자체가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나 상하 관계를 전제하는 위계적인 표현²²⁾과 고압적인 표현으로 구분하였다²³⁾.

구분	유형	표현 예시
차별적 표현	표면적 차별어	미망인(->고OOO씨 부인), 결손가족(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노숙자(->노숙인), 맘카페(->(지역)육아카페)
	이면적 차별어	학부형(->학부모), 유모차(->유아차), 정상인(->비장애인)
권위적 표현	위계적인 표현	감찰(->감사/조사), 계도(->알림/안내), 시책(->정책)
	고압적인 표현	~할 것(->하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

4.2. 차별적·권위적 표현 목록 및 용례

차별적·권위적 표현 목록 및 용례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연구 및 조사 등에서 수집한 차별적·권위적 표현 목록 중 비속어와 유행어 등 공문서에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은 제외하고 실제 공공언어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였다. 공공언어에서 사용된 용례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에 생산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²⁴⁾, 일부 법령에서만 나타나는 용어들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2015)>에서 소개한 용례로서 이미 개선이 완료된 사례이지만, 용례를 제시하기 위해 그대로 수록하였다. 공문서 평가를 위해 구축한 차별적 표현과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1) 이러한 구분 역시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남녀, 부모, 자녀와 같이 성별의 순서가 비대칭적이어서 차별적 표현이라고 보는 경우, 순서가 겹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표면적 차별어라고 할 수 있으나 순서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을 우선에 두는 사회, 문화적 관습에 기인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면적 차별어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말 자체에 비하 의미나 편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경우, 불필요한 성별 표시 등을 표면적 차별어로, 그 외의 용어는 이면적 차별어로 구분하였다.
- 22) 강현철(2015:49)에서는 ‘기부채납(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이전받는 기관이 취득하는 행위)’은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용어와 쓰임이 다른 권위적 용어라는 점에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본뜻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적절하지 않게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권위적 표현에 속한다고 보았다.
- 23) 위계적인 표현과 고압적인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공공성 평가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문서에서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표현에 차이가 있어 형식적으로나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24) 120여 개의 차별적, 권위적 표현이 사용된 공문서 사례를 수집하는 데에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정인환 부장님과 김진희 선생님의 적극적으로 도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지면을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유형	차별적 표현	개선 용어	용례	출처
표면적 차별어	간호원	간호사	한국 간호원들은 최근 이곳 정부의 지원도 늘고 이민도 가능하며 경력을 이어가기도 좋은 상황이다.	한국일보 (2022. 8. 19.)
	결손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특히 학습부진 학생들의 성별, 부모 학력과 직업, 결손가족 여부, 가구소득과 빈곤 여부 등의 변수를 하나씩 투입해 가며 학습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빈곤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은 학습부진에 빠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영어는 1.7배, 수학은 1.4배 높았다.	한겨레 (2010. 8. 29.)
	고아원/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안군이 고아원에서 10대 소녀들을 잔인하게 때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지난 30일 밤(현지시간) 온라인에 유포된 후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BBC가 1일 보도했다.	뉴스스 (2022. 9. 1.)
	노무자	노동자	일제강점기의 막바지, 대동아 전쟁이 한창일 때 옥매산광산 노무자들이 강제동원으로 제주도에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다 선상화재로 인해 120여 명이 한꺼번에 희생당한 사건이다.	오마이뉴스 (2022. 8. 8.)
	노숙자	노숙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에서 노숙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뉴스스 (2022. 8. 26.)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신문 (2021. 12. 2.)
	맹인	시각장애인	강화군은 맹인을 위한 한글 훈맹정음을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이다.	인천투데이 (2022. 8. 23.)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청소년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머니투데이 (2022. 8. 24.)
	몰카	불법촬영	투숙객 몰카 촬영한 숙박업소 직원 실형	대한숙박업중앙회 보도자료 (2022. 5. 30.)
	미망인	고○○○(씨)의 부인	최근 주총에서 갑자기 미망인이 대표로 취임하고 아들이 등기이사 되는 것을 보고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2022. 5. 2.)
	미숙아	조산아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는 전체 출생의 8.3%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후생신보 (2022. 8. 23.)
	미혼	비혼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례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가정과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취득 등의 법적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보도자료 (2022. 6. 22.)
	미혼모	청소년 한부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미혼모·부자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당면한 출산·양육·의료·심리 등 복합적 어려움의 부담을 경감시켜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대상자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천안시 보도자료 (2022. 6. 13.)
	바지사장	대리사장, 명의 사장	"안전보건책임자라는 면피용 '바지사장'을 중간에 앉혀 언제든지 중대재해로부터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2022. 8. 25.)
	버진로드	웨딩로드	전문가의 메이크업 시연과 인기 웨딩홀 버진로드를 미리 걸어보는 웨딩홀 가상현실(VR) 체험도 가능하다.	시사위크 (2022. 8. 19.)
보모	유아돌보미, 육 아지원사	아이비리그 졸업자를 비롯한 젊은 고학력자들이 보모 시장에 몰리는 기현상이 미국 사회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2022. 9. 1.)	
부녀자	여성	농촌 일손 돕기 프로젝트는 바쁜 농번기에 도시 부녀자들을 농촌에 연계해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 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세계타임즈 (2022. 8. 31.)	

불구	장애	영국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PFM-1 대인지뢰는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대량으로 사용됐고 당시 지뢰를 장난감으로 착각한 많은 아이들이 불구가 됐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2. 8. 8.)
불구자	신체장애인, 장애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빨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제1조제7호)	알기 쉬운 법령 기준(2015)
불우 이웃	어려운 이웃	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동네도 깨끗이 청소할 검 폐지를 모아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자"며 모금액 목표를 50만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22. 9. 1.)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저소득층	대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밖의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중소기업투데이 (2020. 1. 21.)
아메리칸 인디언	토착 미국인	아메리칸 인디언 복장을 한 여성은 사회자가 건네는 오스카 트로피를 밀어내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mbc뉴스데스크 (2022. 8. 17.)
애완동물	반려동물	고양이를 숲속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개를 차에서 쫓아낸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을 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2. 8. 30.)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2020년에는 해송양로원 입소 어르신, 2021년에는 도남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 처음사랑원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터 분소를 운영하였다.	통영시 보도자료 (2022. 6. 24.)
얼굴마담	대리사장, 명의 사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여권의 '얼굴 마담'으로 버티다 야권의 공격은 물론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는 일각의 분석 때문이다.	매일신문 (2022. 9. 1.)
에스키모	이누이트	소금을 거의 섭취하지 않은 에스키모의 평균 수명은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짠음식을 좋아해 하루 25그램 이상 소금을 섭취하는 독일인들은 가장 장수 국민이다.	전남일보 (2022. 8. 30.)
여OO(여의사, 여배우)	('여' 빼기) OO (의사, 배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의사 특유의 공감 능력과 따스함,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여의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세계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넓히고자 한다.	데일리메디 (2022. 5. 2.)
여성적 어조	부드러운 어조	이 시인이 쓴 평론은 '박재삼 시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와 패러디 기법'으로 "한국 전통 시에서 두드러졌던 정서인 한을 절묘하게 시적 리듬으로 형상화한 박재삼의 시적 발화를 여성적 어조에서 접근했"고 "박재삼의 아니마(남성이 지닌 무의식적인 여성 요소)는 어머니가 아닌 고전 속의 여주인공으로 (그 여성들의 표현을) 패러디한 관점에서 새롭게 보았다"고 평가했다.	경남도민일보 (2021. 12. 28.)
남성적 어조	강인한 어조	향토적인 풍경을 그린 서정적인 작품과 남성적 어조로 독립에 대한 강한 염원과 신념을 노래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강사신문 (2019. 2. 24.)
잡급	일급	김 의원은 "공무직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 불가피할 경우 사업비 비목에 별도 계상하도록 했음에도 다수의 기관이 기존 사업비 내 잡급 항목에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2020. 10. 8.)
장애우	장애인	보은군은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에 있는 보은영화관에서 관내 장애우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9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영화 보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저널(2022. 8. 31.)
장애자	장애인	최근 드라마를 통해 소통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쏠려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열정과 마음을 모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2022. 8. 25.)
처녀비행	첫 비행	지난 5월 31일 AG600M이 육상 처녀비행에 성공한 뒤 승무원과 설계팀, 시험비행팀이 항공기의 최적화 설계, 외부 연구 시험비행 등의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인민망 (2022. 8. 30.)
처녀작	첫 작품	모바일이 아닌 PC 온라인을 처녀작으로 내세운 신생 계	게임&

			임 개발사도 있다.	(2022. 9. 1.)
	처녀항해	첫 항해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영국 사우샘프턴항(港)을 떠나 미국 뉴욕시로 처녀항해에 나섰던(set sail on her maiden voyage)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luxurious passenger vessel) 타이태닉호가 빙산에 부딪혀(hit an iceberg) 침몰했다.	조선일보 (2021. 12. 23.)
	친가/외가	아버지 본가/어머니 본가	A씨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2014년 5월경까지 친가 식구인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다가 그 이후에는 외가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리얼타임스 (2022. 2. 12.)
	친할머니(친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에 참여한 임소희 태평양 대리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2019. 4. 16.)
	파출부	가사도우미	특히 안성병원 식당의 경우 파출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파주병원은 병동의 절반만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매일경제 (2022. 9. 1.)
	행려환자	무연고환자	복지부, 의료급여 행려환자 성분 창설·주민등록 지원	의학신문 (2020. 8. 4.)
	혼혈아	다문화 2세	벨기에, 아프리카 식민지 혼혈아 '강제격리' 과거사 사과	연합뉴스 (2019. 4. 15.)
	소외계층	*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안나의집 무료급식봉사, 26일 월각사 노인무료급식소 봉사활동과 같이 국회 기부금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이번이 3차 활동이다.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2022. 6. 22.)
이 면 적 차 별 어	000의 아버지	000의 대가	'이더리움의 아버지' 부테린 "2~3년내 코인 결제 대중화된다	이코노미스트 (2022. 8. 8.)
	강사료	강의료, 강연료	학습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한 자체학습 강사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모집대상이 5인 이상(대덕구민 80%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신규 동아리로, 구성원들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해 자발적인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덕구 보도자료 (2022. 6. 13.)
	결혼 이주 여성	국제결혼 여성	금산군(군수 박범인)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 '다정다감'은 지난 31일 추석 맞이 봉사를 전개했다.	뉴스로 (2022. 9. 1.)
	경력단절여성	고용중단여성/경력보유여성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수성구 보도자료 (2022. 6. 12.)
	공연음란/공연음란물	불법 성적 노출	전문가들은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뉴스스 (2022. 8. 29.)
	그녀	그	그녀는 최근 한국에서 녹음을 마친 신곡 'Goodbye'의 발매 소식을 전하며 노래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는데, Francinne의 신곡 스포일러가 담긴 인터뷰 영상은 <심플리 케이팝 콘투어>에서 만날 수 있다.	뉴스스 (2022. 8. 29)
	김여사	운전 미숙자	"김기사 김여사, 거기선 안 돼요!"...기상천외 유턴에 말문 막혀	매일경제 (2022. 8. 29)
	낙태	임신중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낙태에 대해 언급하기조차 꺼리고 있다.	아주경제 (2022. 8. 30.)
	내연남	내연인	"연락 왜 안 받아" 내연남 집 마당에 걸린 옷에 불 지른 50대 여	뉴스스 (2022. 8. 19.)
	내연녀	내연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일 내연녀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톱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22. 9. 2.)
내조/외조	(배우자의) 도움	제막에 앞서 이동섭 국기원장이 김운용 원장의 배우자인 박동숙 여사에게 헌신적인 내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기원 보도자료 (2022. 6. 16.)	
녹색 어머니회	녹색 학부모회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회장 여환분)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과 함께 녹색어머니회의 일일차집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광	광명포스트 (2022. 8. 27.)	

		명시에 기탁했다.	
동거남	동거인	누나 동거남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3년 선고	머니투데이 (2022. 9. 1.)
동거녀	동거인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경제 (2022. 8. 28.)
동남아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동남아 노동자에 해수욕장 서비스 강화해야	국제신문 (2016. 8. 15.)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영상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국가·사회적 혼란까지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술·제도적 대응을 통해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6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제언했다.	연합뉴스 (2022. 8. 6.)
리벤지 포르노	성찰영물 유포 협박,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에 딸의 사진이 올라왔고, 딸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4년간 가해자를 쫓았다.	서울경제 (2022. 8. 26.)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승하차장	이밖에, 피트니스센터를 비롯, 경로당 · 어린이집 · 맘스스테이션 · 주민카페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 내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글로벌경제신문 (2022. 9. 1.)
맘카페	(지역) 육아카페	타지에서 이사와 경산이 낯설어 적응하기 힘들었던 주부, 육아로 지쳐 우울증이 온 주부들 중 맘카페로 인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표현을 해오는 회원들도 많았다.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2022. 8. 8.)
몸캠피싱	(화상 통화 시) 촬영물 협박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고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헤럴드경제 (2022. 8. 31.)
몹쓸 짓	성범죄	손녀 친구에 몹쓸짓, 60대 할아버지 '중형'	서울신문 (2022. 8. 18.)
손찌검	폭력	행패 부리다 경찰관에 손찌검까지...취객들 잇단 입건	뉴스원 (2022. 8. 25.)
수유실	아기침대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을 비롯해 신생아실과 간호사실, 수유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경향신문 (2022. 9. 2.)
스포츠맨십	스포츠정신	그러나 12살 선수의 행동은 "훌륭한 스포츠맨십"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조선일보 (2022. 8. 11.)
신사협정	명예협정	이번 소송은 삼성중공업이 주도하고 나머지 3개 사가 이에 동참하면서 시작됐지만 가장 격분한 곳은 신사협정을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으로 전해진다.	머니투데이 (2022. 8. 26.)
아내, 처	배우자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협신문 (2022. 6. 16.)
야동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성착취물/	SNS에 교복 야동 올린 20대... '아청법 무죄' 집행유예→벌금형	머니투데이 (2022. 7. 5.)
여성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 여성	재단은 지난해부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을 위한 공모전 지원을 돕는 등 다양한 기회 모색을 진행해 왔다. 출처:이로운넷(https://www.eroun.net)	이로운넷 (2022. 8. 13.)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원장 김영숙)은 20일(월)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 여성여자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AI·SW 체험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 보도자료 (2022. 6. 20.)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의제간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교육신문 (2022. 8. 5.)
외국인노동자 (근로자)	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 보도자료 (2022. 6. 28.)
외청(外廳)	독립청/관리청	방위사업청은 임직원이 1600명 규모로 정부 외청 중 손꼽히는 규모이다.	금강일보 (2022. 9. 1.)
유모차	유아차, 아기차	이에 맞춰 유모차와 함께하는 일상을 흥미로운 모험으로 만들고, 아이들과의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도록 생활편의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경제 (2022. 8. 28.)

음란물	(불법촬영의 경우)불법촬영물, 불법성(性)영상물	청소년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이력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기신문 (2022. 8. 30.)
이주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지난 8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수용된 지 8시간여 만에 사망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45)가 사망 당일 독방에서 뒷수갑과 머리 보호장비를 착용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2022. 9. 2.)
자(子)	자녀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子是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2015)
자궁	포궁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 항목은 일반검진, 및 위암(40세 이상 남녀),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이다.	아산시 보도자료 (2022. 6. 27.)
자매결연	상호결연	행사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안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과 자매결연 도시 특산물, 축산물 등을 기존 판매가보다 최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풍성한 사은행사도 진행된다.	안산시 보도자료 (2022. 5. 20.)
재외자(在外者)	외국거주자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허뉴스 (2020. 12. 23.)
저출산	저출생	충청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의 인식개선 개선 사업인“충북제4기 100인의 아빠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2. 6. 20.)
정상인	비장애인	정상인들도 힘들어하는 설악산 대청봉 등반을 절단 장애인들이 설악산 민간구조협력단의 도움으로 산행을 무사히 마치면서 장애인들도 정상인 못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2022. 6. 13.)
조선족	재중동포	중국 내륙이나 연해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자녀의 경우 한족 학교에 다니며 한족 사회에서 성장하다 보니 우리말과 문화를 모른 채 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9. 2.)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허리띠 졸라맨 통일부...탈북민 입국 감소로 정착지원금도 줄어	이데일리 (2022. 8. 30.)
편모(偏母)	한부모	부모가 이혼한 뒤 편모가정에서 살아오다 임대한 오모씨(20·부안군 행안면)도 뇌동맥파열로 쓰러진 모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입대 1년만에 군복무를 접었다.	전북일보 (2004. 6. 14.)
편부(偏父)	한부모	결혼율이 계속 감소하고 이혼율(36%)은 증가해 편부, 편모, 계부, 계모가 기르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데다 부모가 있더라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동거부부가 많다.	주간동아 (2001. 2. 8.)
학부형	학부모	2030 완주군 청년회, 완주군 학부모회 학부형들이 14일 오전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방문, 완주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예비후보를 공개지지 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2022. 4. 14.)
효자(상품)	인기상품	"불황엔 가성비"...'효자' 된 참고형 할인매장	뉴스1 (2022. 8. 26.)

또한 권위적 표현과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권위적 표현	다듬은 말	용례	출처
고압적인 표	~할 것.	~하시기 바랍니다.	당선인들에게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낙선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현수막을 4개소에 게첨해 지역 화합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장흥군 보도자료 (2022. 6. 20.)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2015)

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	
위 계 적 인 표 현	감찰	감사/조사	공직감찰과 불시점검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는 물론 자체감사 10회 실시 및 개선 수범 사례 10건 발굴 등 성과를 냈으며 군 재정 건전화와 낭비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계약원 가심사 및 일상감사 부문 145건과 609억 원 심사를 통해 과다 책정된 원가를 바로 잡아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천군 보도자료 (2022. 6. 30.)
	계도	알림/안내	보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보령시 보도자료 (2022. 6. 7.)
	기부채납	공공기증	기존 공직의 소유자였던 무의자문화재단으로부터 지난 2019년 기부채납 받아 개방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보도자료 (2022. 5. 23.)
	노임	임금	작성되는 사항은 통계법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노임 대상이나 기타 서류를 첨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문화재수리협회 안내 (2022. 6. 29.)
	변명서	설명서, 답변서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일보 (2020. 10. 20.)
	별정(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지방별정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 1항에 보면 비서나 비서관을 채용하는 경우 별도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2017. 10. 19.)
	별정우체국	위임우체국	전남지방우정청 주관 2022년 제1회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저널 (2022. 5. 2.)
	별정통신사	계약통신사	경찰은 피해자가 별정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 위치추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2022. 8. 3.)
	보좌		민선8기 여수시 출범을 앞두고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성공적인 시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수시 보도자료 (2022. 6. 10.)
	사역	일/봉사/업무	보성군은 최근 전 직원 및 사역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산림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안전 보건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보성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저널(2022. 9. 2.)
	사정(司正)	감사/조사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2022. 8. 25.)
	시달	전달	노동부는 또 사고 발생 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석유·화학업종 사업장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을 하지 말고 표준 작업절차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시달했다.	경향신문 (2022. 9. 1.)
	시보(試補)	임시/보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자님이 들려주는 취재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어린이시보를 위해 직접 취재해서 좋은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해시 보도자료 (2022. 6. 27.)
	시정조치	개선조치	안심식당 점점은 ▲덜어먹기 실천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재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항 재적발 시 안심식당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연수구 보도자료 (2022. 6. 2.)
	시책	정책	안전관리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감사원 자체감사심사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대산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도자료 (2022. 6. 8.)
	얼다	받다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얻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2015)
역무(役務)	노동/노무	미음본부 (MIEUM HQ, 본부장 강동혁) 내에 구축된 가스연료종합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실제 선박 운용조건과 동일하게 모사한 환경에서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하는 것을 역무로 참여하여 이	한국조선해양기 자 재 연구 원 보도자료	

			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22. 6. 17.)
임검	현장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22. 9. 1.)
종주국	탄생지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와 소비자체험 홍보 등을 통해 현지인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프리미엄 한국 김치’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도자료 (2022. 6. 15.)
주무관청	담당관청		당초 한국팍리스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만을 주무관청으로 둘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법인 승인을 받았다.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2022. 8. 17.)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자		자금세탁 방지 수준을 평가할 때 준법감시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독립적 감사가 잘 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매일경제 (2022. 9. 1.)
증명사진	(얼굴)사진		현장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면접까지 실시하여 실질적인 채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벤트로 ▲ 증명사진 무료 촬영, ▲ 스트레스검사, ▲ 직업타로로 알아보는 적성검사, ▲ 취업서류, 이미지,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경 상 남 도 보도자료(2022. 06.26)
지도	교육/ 가이드		장애인스포츠 체험 시에는 해당 종목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지도하여 참가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2. 6. 14.)
치하하다	말하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속에서 국민건강 수호와 치과의사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치하하기 위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도자료 (2022. 6. 22.)

5. 마치며

차별적, 권위적 표현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서 수행하는 차별 언어 개선 운동과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해문화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 말모이’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차별이 내재한 말을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꾀하는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차별 언어 바꾸기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차별의 경험과 차별 언어에 대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디 사람’,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등에 내재된 차별성을 조명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 사진’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차별 의식을 찾아내고 언어 개선을 통해 차별을 없애고자 시행하는 캠페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공문서 생산 주체인 공공언어 사용자들이 공공언어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 권위적 표현을 인식하고 개선한다면, 언어의 개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진행한 차별적, 권위적 표현 목록 및 용례 구축 작업은 앞선 연구들과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한 작업에 불과하다. 다만, 기초적인 수준에서 구축된 용어 목록과 용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언어 문화 개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모여 편견과 비하, 차별, 모욕이 담긴 표현이 점차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의식이 달라지는 긍정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철 외(2015),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 국립국어원(2019),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 김슬옹(2021), 차별어의 특성별 분류에 따른 차별어 판별 기준 연구. <공공언어학> 6호. 한국 공공언어학회. 47-79
- 김해문화재단(2020),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 말모이2: 당사자 기반으로 다시 모으다
- 박재현 외(2009),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국립국어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6. 30.)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보도자료
- 안상수 외 (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이건범(2018), 차별어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방송작가 웹진 2018년 11월호(152) 한국방송작가협회, 66-67
- 이정복(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 이준일(2014),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65-90, 고려대 법학연구원
- 임영철 외(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조태린(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388-410, 외솔회
- 허재영(2016), 차별 표현의 특징과 생성 용인, 사회언어학, 24(3) 379-397, 한국사회언어학회
- 서울시 행정순화어 전체 목록(558)
- 희망제작소 누리집 <https://www.makehope.org>